

비육돈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 홍 보 부 -

많은 비육경영이 고가의 전문적인 돈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돈사 허용능력의 70~80%를 간신히 넘어서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용가능한 공간을 100% 사용하길란 불가능하지만, 건축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두수를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사 수용률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수용률을 80~90% 정도로 개선한 경우의 경제적 가치는 돈사의 건축비에 좌우되는데, 국가별 수용밀도의 차를 무시한다면 1m²당 건축비를 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사육한 횟수로 나누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사육돈 1두당 점유면적은 1m²이다.

감가상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수용률 80%인 경우에는 연 4회, 90%인 경우에는 4.5회 교체수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출하돈 1두당 건축비는 수용률이 90

%인 경우, 80%인 경우에 비해 11%나 줄어들게 된다.

● 경영계획

일관경영에서는 교배·분만돈사의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여 비육돈사 돼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고율이나 성장속도에 따라 변수가 생기겠지만, 대강의 출하예정돈 두수는 주마다 일령과 체중과의 간단한 그래프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계산에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보다 상세히 예측할 수 있다.

기타 중요한 정보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육돈사의 잠재적 사육용량을 알아두는 것이다.

●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만일 비육돈사에 전부 수용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돈이 생산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과잉자돈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육돈을 조기(체중이 적은 것) 출하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하지만 생산자는 먼저 이 방법을 취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돈시장에 내놓기에 너무 크거나 하여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인 출하체중을 낮추는 방법은 현금의 흐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체중을 4~5kg 낮춤으로써 약 1주간 비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처리업자에게는 반가운 일로서 비육돈사의 과밀에 의한 성적 저하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출하체중이 너무 줄어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처하기 쉽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출하체중의 변화와 수익성의 예측을 해주는 컴퓨터 소

프트도 있다).

따라서 돼지를 약간 장기 사육해두는 것은 수용능력과 돼지의 흐름 관계를 고려한 경우의 대응책이 된다. 일부 의견으로는 일관경영의 경우 방역상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본이 적다고 해서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 사료의 조절

하나의 전략으로서 과거에는 성장속도를 빨리하거나 늦추기 위해 사료급여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쓰여 왔다. 그러나 무제한급여가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 대신 사료의 영양가(농도)를 바꾸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다수의 사료메이커는 3종류 이상의 비육용 사료를 구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돼지의 유전적 능력, 사료환경에 따라 농도나 단백질과 에너지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이들 농도가 다른 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위생상태

수용률을 개선하는 데 있어

서 위생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돼지를 바꿔 놓을 때마다 실시하는 세정은 수용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

대개 비어 있는 돈방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돼지를 수용하려 한다. 그러나 도구와 작업 방법에 따라 세정에 필요한 시간에는 큰 차가 생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꿔 수용할 때마다 소요되는 수리와 세정기간은 7일이다. 이것이 달성되면 성장을 촉진하고, 돈방의 이용효율을 높이며, 일상적 관리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정을 게을리 하면 비위생의 악순환에 빠져 성적이 저하되고 생산이 감소하며, 이익도 상실되게 된다.

● 돈방관리

일부에서는 성장이 낮은 돼지만을 모아 사육하는 자돈방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대부분의 비육돈사에는 이러한 돈방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돈방은 거의 위치와 설계, 환경이 열악하고 게다가 더럽다. 따라서 출하면에서 보면 올인-올아웃을 예외없이 실행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육기의 최종단계에

서 작은 돼지만을 혼합하여 사육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인-올아웃은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과연 잘 실행되고 있을까. 한 번 시험적으로 혼합한 후의 체중변화를 출하하기 까지 점검해보도록 권하고 싶다. 기대한 만큼은 성장속도도, 시스템 자체도 잘 유지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용밀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양돈가들은 적정한 수용밀도보다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수용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용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성장이 낮고 방역상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돈방의 수용효율을 높이려면 돼지를 꼭 차게 수용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돼지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도록 배려해야 한다.

<Pig International '93년 11월호에서>

